

직업훈련

| 홍 광 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hkp@krivet.re.kr)

▣ 정책동향

□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발표(2007.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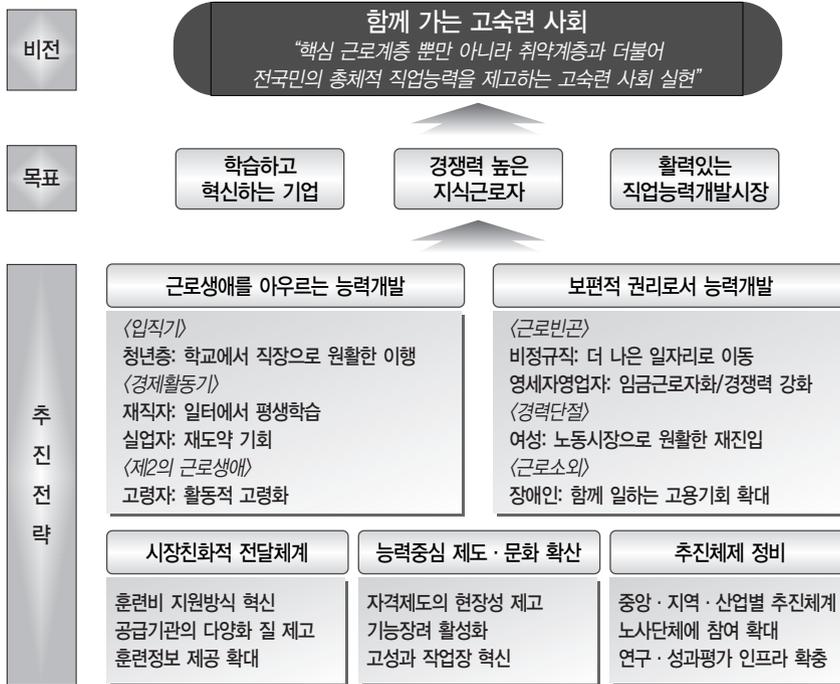
○ 추진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고용,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
-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 만이 지속 성장 가능: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모방을 통한 추격전략 → 창의에 기반한 선도전략, 가격경쟁 → 품질경쟁)
-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 만이 일자리 보장: 고용유연화의 진전(평생직장 → 평생직업)과 숙련인력에 대해 노동시장 수요가 집중(숙련편향적 기술진보)되는 상황
-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 직업능력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핵심인력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수준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미흡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25~64세): 한국(14.1%), OECD 평균(37.1%)
 - 숙련노동력 활용 용이성('06년, IMD): 61개국 중 47위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확립은 인적자본의 형성·활용·축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삶의 질,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전략이 될 것임.

○ 중점 추진 과제([그림 1] 참조)

-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 시장 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 능력중심 제도·문화 확산
-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그림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노동부(2007. 3),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설명자료.

○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의 양적·질적 성과 제고 기대
- 주요 성과지표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 ☞ 15세 이상: 12.7%('04) → 19.0%('08) → 25.0%('11)
 - ☞ 중소기업<300인 미만>: 23.9%('06) → 30.0%('09) → 38.0%('11)
 - ☞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2.3%('06) → 18.0%('09) → 24.0%('11)
 - 숙련 노동력의 활용 용이성(IMD): 47위('06) → 35위('09) → 25위('11)
 - 실업자훈련 취업률: 46.2%('05) → 53.5%('09) → 60.0%('11)
-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종합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숙련-고생산성-고임금」을 구현하는 일자리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지속성장 실현

□ 200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발표(2007. 4. 9)

○ 추진개요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 대응, 해외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전력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공급은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에너지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교육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을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지난해 257억원 대비 17% 증액된 300억 원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투자키로 하였으며, 동시에 인력수급 실태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지원확대와 엄정한 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 사업내용

- 전력분야: 산업인력양성(15억 원), 기초인력양성(40억 원), 고급인력양성(109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64억 원
-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59억 원), 특성화대학원(20억 원), 최우수실험실(6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5억 원
- 에너지자원분야: 학술진흥사업(15억 원), 인력양성센터(24억 원), 장학연수(2억 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5억 원), 자원개발아카데미(5억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51억 원

□ 노동부-세계은행(IBRD) 직업훈련분야 공동연구사업 MOA체결(2007. 5. 17)

○ 사업 목적

- '한국 직업훈련제도 발전사례를 통한 저소득국가의 능력개발 제고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 직업능력개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함.
- 세계은행 주관아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직업능력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
 - 향후 3년간 총 30만 달러 투입 예정
 - 현재 국제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세계은행 회원국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한 활용방안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아태지역 개도국에 전파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와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역할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사례를 정확히 소개하고 향후 개도국 지원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직업훈련을 통해 빈곤퇴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세계은행의 사업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임.

□ '07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사업 선정 결과 발표(2007. 3. 9)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20%나 낮은 실정임.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M자형의 취업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구조임.
 - 여성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04): 우리나라 59.1%(남성 92.2%), OECD 평균 82%(남성 91.9%)

○ 추진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대졸 이상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표 1) 참조).

○ 개요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역량개발에서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서비스 제공
-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산업체, 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직업기초교육과 직업전문교육, 직업현장체험까지 포함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기획

○ 부산

-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 지역 내 대학, 지방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성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부산간호

사회와 간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18학급 미만 학교의 양호도우미 인력으로 활용

- 요건이 충족(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이 5년 이내에 재취업시)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엄마채용장려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대전

- 대전광역시에서 중심이 되어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영재교육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부방에 우선적으로 수학·과학 강사로 파견할 계획임.
- 2008년에는 대전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과 더불어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임.

표1. 선정지역 및 프로그램

시·도	프 로 그 램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 방과 후 논술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 찾아가는 실천 과학·수학 강사 양성 프로그램 • 방과 후 컴퓨터 강사 양성 프로그램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양성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별 전문인력 양성(과학, 영어, 독서논술, 한자) • 중소병원 및 소규모학교 간호인력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 맞춤형 선호 영역별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학교-어린이 전문사서 • 방과 후 학교-논술지도사 • 가족상담사 • 커리어코칭 전문가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간호사 커리어 코칭 구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동향

□ 2007년 1/4분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인원,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2007년 1/4분기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 지원 인원 기준으로 81만3천여 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10.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 2006년 4/4분기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다소 감소한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이 68만7천여 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13.1% 증가
-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6만7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3% 감소
- 그 밖에 기타인원은 6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7% 증가
- 기타훈련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훈련들이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 증가현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증가하는 추후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임.
 - 기타인원 중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적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7,934명)와는 다르게 전혀 없었음.
 - 수강지원금의 경우 4만8천여 명이 지원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116.5%의 증가율을 보임.
 -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은 6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2% 증가
 - 정부위탁훈련의 경우에는 2천5백 명대로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7.5%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6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활용해 인적자원개발에 나선 인원은 247명으로 나타남.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2007년 3월 본 사업 실시함.

표2.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 분기		증가율	2007. 1/4	
	2005. 1/4	2006. 1/4		증가율	증가율
총 계	602,200 (100.0)	734,201 (100.0)	21.9	813,066 (100.0)	10.7
직업능력개발훈련	518,644 (86.1)	607,062 (82.7)	17.0	686,697 (84.5)	13.1
실업자재취직훈련	69,768 (11.6)	84,734 (11.5)	21.5	66,707 (8.2)	-21.3
기 타	13,788 (2.3)	42,405 (5.8)	207.6	59,662 (7.3)	40.7

주: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 사업주양성훈련(자체, 위탁), 사업주향상훈련(자체, 위탁), 사업주전직훈련(자체, 위탁), 해외직능개발사업 등의 9개 사업으로 구성.

2)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정부위탁훈련은 각각 훈련비용 및 수당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중복 집계될 수 있음.

3) 기타는 유급휴가훈련, 정부위탁훈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수강지원금,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중소기업 권소사업 등의 수혜 인원의 합임.

4)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임.

5)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동향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 비율 7.9%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p 높아짐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여전히 유지
- 2007년 1/4분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율이 7.9%로, 전년 동기보다 0.4%p 높아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6.7% 늘어났으나 훈련참여 인원은 68만7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은 2005년 4/4분기 이후 7% 이상을 유지
 - 2007년 1/4분기까지는 10.1%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고 참가율을 보였으나 이번 분기에 약간 감소함.

표3.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명, %

구분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고용보험피보험자(A)	7,695,612	8,105,797	8,652,176
직업능력개발훈련(B)	518,644	607,062	686,697
비율(B/A)	6.7	7.5	7.9

주: 각 분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월 인원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훈련 참여율, 5~299인 사업체 전년도의 증가세 유지

- 사업체 규모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을 보면,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의 참여율이 약 68.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분기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대부분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 1,000인 이상 사업체 2007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약 36만3천여 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해 해당규모 사업체의 피보험자 중 25.4%의 참여율을 보임.
- 대규모 사업체 중 30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의 훈련 참여율은 12.0%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

- 5~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약 20만 명이 훈련에 참가해 4.0%의 참여율을 보여 지난분기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8.0% 증가한 인원임.
- 중소기업에서의 참여율은 올해 1/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네 분기 연속 3% 이상을 보이고 있음.
- 5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서는 약 1만6천 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1.2%의 참여율을 보임.
- 2006년 4/4분기에 1% 이하로 내려갔던 것이 약간 상승

표4.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명, %

연, 분기	사업체규모 구분	계	5인 미만	5인~299인	300인~999인	1000인 이상
2005. 1/4	피보험자수	7,695,612	1,277,620	4,395,895	815,828	1,206,269
	인원	518,644	33,630	88,023	62,415	334,573
	참여율	6.7	2.6	2.0	7.7	27.7
2006. 1/4	피보험자수	8,105,797	1,234,952	4,697,783	896,511	1,276,551
	인원	607,062	13,067	135,057	79,265	379,673
	참여율	7.5	1.1	2.9	8.8	29.7
2007. 1/4	피보험자수	8,652,176	1,333,523	4,990,545	899,302	1,428,806
	인원	686,697	16,146	199,909	107,814	326,828
	참여율	7.9	1.2	4.0	12.0	25.4

주: 각 분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월 인원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주 훈련 참가인원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

- 2007년 1/4분기 중 시행된 사업주 훈련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
- 사업주 훈련 중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중은 위탁 훈련이 59.2%로 다소 높았음.
- 자체훈련 인원은 2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1% 증가
- 위탁훈련 인원은 40만7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9% 증가

표5. 사업주 자체훈련, 위탁훈련 실적

단위: 명, %

구분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증가율	증가율
총 계		518,644 (100.0)	607,062 (100.0)	17.0	686,697 (100.0)
사업주 자체훈련		256,972 (49.5)	259,054 (42.7)	0.8	279,912 (40.8)
사업주 위탁훈련		261,672 (50.5)	348,007 (57.3)	33.0	406,785 (59.2)

주: 1) 사업주 훈련은 양성, 향상, 전직훈련으로 구분됨. 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임.
 3)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4) 2006년 총계는 해외직능개발비용 1명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주 양성훈련 인원 49.6% 증가

- 2007년 1/4분기에 전체 사업주 훈련 중 향상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95.1%로 절대 다수를 차지
 - 향상훈련은 전년 동기 대비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양성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4.9%로 기존보다는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양성훈련은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했고, 2005년 4/4분기부터는 훈련 참여자 비중이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전직훈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 자리수의 훈련인원은 유지 하고 있음.

표6. 사업주 양성훈련, 향상훈련 실적

단위: 명, %

구분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증가율	증가율
총 계		518,644 (100.0)	607,062 (100.0)	17.0	686,697 (100.0)
사업주 양성훈련		7,515 (1.4)	22,383 (3.7)	197.8	33,490 (4.9)
사업주 향상훈련		511,022 (98.5)	584,514 (96.3)	14.4	653,070 (95.1)
사업주 전직훈련		107 (0.0)	164 (0.0)	53.3	137 (0.0)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3) 2006년 총계는 해외직능개발비용 1명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신규 취업자의 양성훈련 참가율 10.2%**

- 신규 취업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체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중 양성훈련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신규취업자 32만8천여 명 중 10.2%에 해당하는 3만3천여 명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에 비하면 3.0%p 높아진 것임.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한 것과 비교해 양성훈련의 인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 49.6% 증가해 증가폭이 더 컸음.

표7. 신규 취업인원과 사업주 양성훈련 실적

단위: 명, %

구분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신규취업인원(A)	228,278	310,712	327,644
사업주 양성훈련인원(B)	7,515	22,383	33,490
신규 양성률(B/A)	3.3	7.2	10.2

주: 1) 신규 취업인원은 분기내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합임.

2) 본 자료는 사업주 양성훈련의 인원이 모두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훈련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사업주 양성훈련 참여자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추후 논의할 수 있는 단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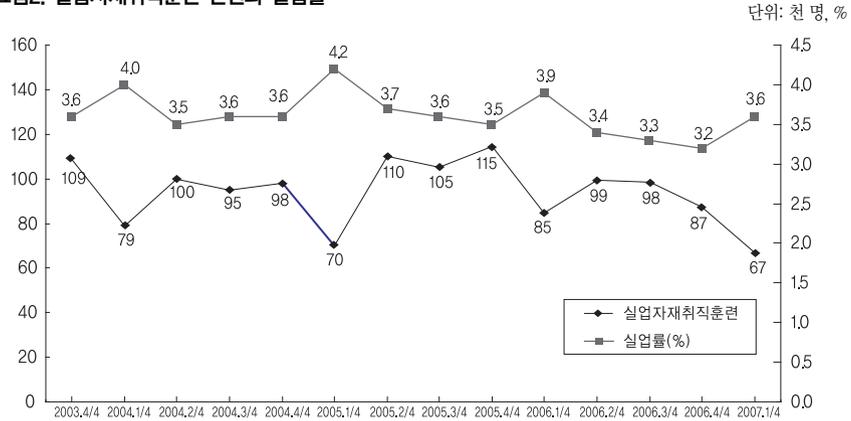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동향**

□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 전년 동기에 비해 21.3% 감소**

- 2007년 1/4분기의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보다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은 6만7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낮아짐.
 - 2004년 1/4분기부터 각 년도 1/4분기에 가장 낮은 훈련 인원을 보이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패턴으로 볼 때 2007년 1/4분기의 실업률 상승으로 2/4분기의 훈련인원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음.

그림2.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과 실업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2007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3월)

□ 비정규직¹⁾ 규모는 577만3천 명으로 36.7%를 차지

- 2007년 3월 비정규직 규모는 577만3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6.7%로 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364만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261만4천명이었음.
 - 시간제 근로자는 123만2천 명이었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224만 4천 명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경험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아

-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32.7%로 비정규직 22.4%보다 높게 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25.4%가 '교육·훈련 경험 있음'에 응답하였으며, 시간제근로자는 90.3%가 '교육·훈련 경험 없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2. 7. 22.))

표8. 교육훈련 경험 유무

단위: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100.0	100.0
있 음	28.9	32.7	22.4	25.4	9.7	20.1
없 음	71.1	67.3	77.6	74.6	90.3	7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 3월 실시), 2007. 5. 24.

표9. 교육비 부담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교육 · 훈련경험 있음	100.0	100.0
교육비 부담	회 사 ¹⁾	62.4	77.4	74.8	53.6	89.8
	국가기관 ²⁾	31.5	15.0	17.8	29.0	4.3
	본 인	5.2	6.5	6.1	17.0	5.0
	기 타	0.9	1.1	1.4	0.3	0.9

주: 1) 고용주가 부담한 경우 포함.

2)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 3월 실시), 2007. 5. 24.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교육 · 훈련에 대한 교육비 부담주체는 회사, 국가기관에서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